

February 2010



NYU KGSA NEWS LETTER

2010 Spring Semester 개강총회

안녕하세요, NYU KGSA 입니다. 2010 년 봄학기를 맞이하여, 1 월 30 일 6 시에 개강총회를 시작하였습니다. 예전과 달리 토요일에 열린 총회는 봄학기과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신입생들과 재학생들이 참여해 주셔서 성공적으로 마칠수 있었습니다. 1 부 순서에서는 2010 년 봄학기에 새롭게 구성된 방성현 회장을 비롯하여 각 학생회임원들의 인사와 소개, Columbia KGSA 와 NYU-Poly 의 회장 과 임원분들과 2010 Census 에서 나오신 관계자분들의 인사로 시작이 되었고, 2 부 순서에서는 신입생들과 재학생들간의 친목을 다지는 게임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많은 선물들과 잘 준비된 음식으로 함께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즐거움을 공유할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February 11th, Valentine Mixer

오는 2 월 11 일 NYU KGSA 는 Columbia KGSA 와 함께 Mixer 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09 년에도 열렸던 Mixer 는 재학생뿐만 아니라 뉴욕과 인근에서 활동중이신 많은 Alumni 와 working professionals 들이 참여해 주셔서 항상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행사입니다. 올해에도 예전보다 더 나아진 행사를 기획하고 있으니, 많은 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2010 Mixer Poster)

(2009 Valentine Mixer at Duvet)

1. Date: Thursday, Feb 11, 2010
2. Time: 10pm-3am
3. Place: HIRO
4. Address: 88 9 Avenue, New York, NY 10011-4900
5. Who: All Columbia and NYU undergraduate, graduate students, and alumni (over 21 year old w/ valid ID) Students & professionals in NYC are welcome to attend as well!
6. With RSVP - \$20/No RSVP - \$25 / Table-\$35 per person
7. Dress Code: Semi Suite for male / Cocktail dress (원피스) for female

Diner's Club 그 첫번째...

2월 19일 Friday 저녁에 이번학기 첫번째 모임을 갖는 다이너스 클럽은 이제 어느덧 NYU KGSA에 빠져서는 안되는 행사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요. 여러 음식들을 맛보고, 또한 다른 과에 있는 학우들과 Networking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의미있는 모임입니다. 그 첫번째 장소가 Carmine's입니다. 저녁 6시 30분으로 예약이 되어있는데요, 더 자세한 일정은 추후에 메일로 공지를 할것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 Date: Friday, Feb 19th, 2010
2. Time: 6: 30 pm
3. Place: Carmine's
4. Address: 2450 Broadway, New York, NY 10024

Diner's Club 의 또 다른 활동 "Fever NYU"

다이너스 클럽에서 또 다른 모임을 기획중인데요, 이름하여 "**Fever NYU**"입니다. 세계 각국의 음식뿐만 아니라 여러나라의 술을 알아가며, 배우고자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첫번째 모임을 2월 26일 늦은 저녁 9시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곧 이메일을 통해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Sports Club's "New Fitness proje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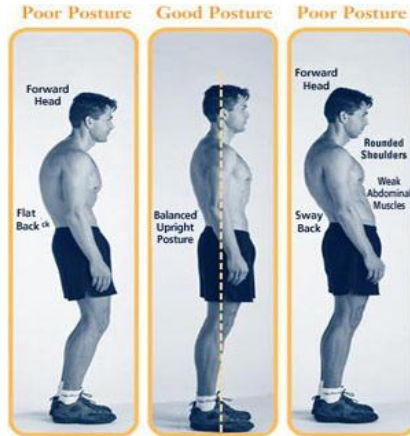


개강총회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스포츠 클럽의 변찬 팀장은 6명의 멤버들을 보아서 한 학기동안 강도높은 체력훈련과 함께 각 개인에 맞는 트레이닝 법을 가르쳐 주기로 하였습니다. 화려한 트레이너로써의 경력때문인지, 신청 공고가 나간뒤 너무나 많은 신청자가 연락을 해와서 6명을 뽑는데 어려움이 많았다고 합니다. 5월까지 계속될 이들의 트레이닝 모습은 매달 소개가 될 예정입니다. 모든 분들이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자신이 계획했던 목표를 달성하기 바랍니다.

Panel discussion with Alumni

이번 학기 새롭게 만들어진 동문 협력부는 뉴욕과 뉴저지에서 활동중인 3분의 패널리스트와 동문, 재학생을 합하여 약 100명 정도의 참여를 통해 Social 모임을 4월 1일 저녁 7시 Kimmel Center에서 실시하려 합니다. 재학생 뿐만이 아닌 많은 NYU 동문들의 참여를 위해 많은 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변에 아시는 NYU 동문이 있으시다면, Name, Title, Company, Address, Phone, Fax, E-mail 등을 동문 협력국장인 양아름씨 (ahyang83@gmail.com)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위한 Column



컴퓨터의 보급과 반복되는 잘못된 동작 또는 오랜 자세로 공부나 업무, 가사노동, 좋지 않은 자세 등으로 인해 요즘 목과 어깨의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랜 시간을 책상에서 소비하는 학생들 경우가 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주로 잘못된 자세나 stress에 의해서 통증이 생기는 경우, 목과 어깨에 있는 근육들이 많은 stress을 받게 되어, 그로 인해 근막통증증후군 (MPS: Myofascial Pain Syndrome)이라는 질환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러한 근막통증증후군은 지속적인 근육의 stress 등에 의해 근육이나 근육을 둘러싸고 있는 근막 속에 통증을 유발하는 아주 작은 압통점 (subluxation)들이 생겨 근육에 급성, 만성 통증을 일으키며, 심하게 발전하면 stress나 압박점에 의해 척추에 붙어있는 근육들이 뭉쳐, 근육의 길이가 짧아지는 현상이 생기고, 또 오랫동안 풀리지 않으므로 해서 척추의 모양이나 curvature가 바뀌어지는 현상, 즉 머리가 몸보다 앞으로 나오게 되면서 목 근육에 상당한 스트레스와 피로를 증가시키는 거북목 증후군 (Turtle Neck Syndrome or Military Neck syndrome)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현재 책상에서 하는 업무와 컴퓨터 작업등으로 인해서 위에 언급한 증상들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초기 증상인 경우 바른 자세 유지와 약 1시간 공부 후 하는 스트레칭 체조를 통해 많은 통증을 감소시킬 수 있지만, 3개월 이상 통증이 지속된다면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정확한 현재 상태를 파악하여 Chiropractic Manipulation 치료, 물리치료, 운동치료와 마사지 요법, 또는 필요한 상황이라면 주사요법과 약물치료를 통해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 간단한 3가지 스트레칭 동작을 생활화하여 학생들 가장 많이 겪는 목과 어깨통증을 예방화 합니다.



자료제공: Dr. Seung M. LEE, D.C.

CHOICE Pain & 비만, 성장 Clinic
1638 Schlosser St. D-4
Fort Lee, New Jersey 07024
Tel: 201-543-8218

U.S Census 2010 – 모두 동참해주세요!!

美유학생 현지 취업 기회 늘리려면 “2010 센서스 참여”

다가오는 2010년 4월 1일은 미국 인구 조사인 2010 Census의 날입니다. 10년에 한번씩 실시되는 센서스는, 향후 10년간 미국 연방 정부의 커뮤니티 지원 예산 (연간 4,350억불, 일인당 환산시 약 1,500불)의 배분 기준이 되는 중요한 조사입니다.

센서스에서 집계되는 인구수는, 이에 맞는 적정규모의 학교, 병원, 도로 등의 커뮤니티 기반시설 확충은 물론이고, 소수계 커뮤니티의 이익을 대변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하원의석수 및 선거지역구 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기초 자료로 쓰이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실제 거주하는 한인들의 인구수보다 적은 수가 집계될 경우에는 정부 정책 수립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을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무엇보다도, 유학생들에게는 한인의 인구수가 실제 인구수에 가깝도록 집계되면 될 수록 다양한 취업의 기회또한 창출이 된다는 것을 염두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자명한 이유는 바로,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인구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경제력과 구매력이 높게 평가가 되고, 한인 커뮤니티를 상대로 마케팅 활동과 특별 전담팀을 운영하는 현지 기업들의 수가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이로인해 늘어나는 OPT의 기회와 현지 취업의 사례를 통해서 볼때, 인구 조사에 참여하는 한인들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가장 큰 혜택을 받는 이들중의 하나는 바로 미국 유학생들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난 2000년에 실시된 센서스 조사에서는, 실제 한인 인구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00만여명만이 참여하여, 미국 커뮤니티에서의 한인 커뮤니티의 위상에 걸맞는 지원과 혜택을 받는 데에 실패했다는 평을 듣기도 했습니다.

이로인해, 한인 커뮤니티에 할당되는 예산이 줄어들고 부담해야하는 세금이 늘어나는 불이익은 물론이고, 공공기관에서의 한국어 지원, 학교에서의 ESL 과정 개설, 설날과 추석의 공휴일 지정등과 같은 다양한 혜택을 누릴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친 셈이지요.

이러한 저조한 참여율에는 많은 한인들이 센서스에 대해 갖고 있는 잘못된 인식이 한 몫을 하고 있는데요, 이를 하나하나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첫째로는 **유학생, 룸메이트, 세입자는 물론이고 임시 방문자까지 모두 참여가능합니다.**
2. 불법체류자가 센서스에 참여하면 불이익을 받을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센서스를 통해 수집되는 모든 정보는 법(US Code Title 13, Section 9)으로 엄격하게 비밀이 보장되어, 미국 대통령은 물론 FBI와 이민국의 요구에도 결코 공개되지 않습니다.
3. 센서스 조사는 **10개의 간단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고, 우표또한 필요 없는 간단한 절차입니다.**
4. 센서스는 한글로 작성된 설문지를 원한다면 한인 추진위원회 (646) 355-3260 이나 www.koreancensus.org, 또는 각 종교 단체를 통해 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센서스에 참여하려면

- **3월 중순**에 영문 설문지가 미국 각 가정에 도착합니다
 - 한글 설문지를 원할 경우 위의 정보를 참조해 주세요
- **룸메이트, 임시 방문자**를 포함한 모든 한인들의 정보를 기입합니다
 - **설문에 독립적으로 응답**하고 싶은 시에는 지정된 곳에 가서 설문지를 작성하여 반송합니다

더욱 많은 정보를 얻으려면

Facebook group page "Korean Americans for 2010 Census"에 가입을 하시거나

- Koreancensus.org 를 방문해 주세요

이상의 간단한 절차를 통해, 나날이 높아져가는 한인 커뮤니티의 위상을 과시할 수 있고, 나아가 한인들은 물론 유학생들의 권익 보장과 취업의 기회 또한 늘릴 수 있는, **미래를 위한 가장 쉽고도 확실한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많은 한인 여러분들과 유학생 여러분들, 그리고 미국 방문객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United States
Census
2010
인구조사



IT'S IN OUR HANDS

참여를 기다리는 한마디~

매 학기 발간될 뉴스레터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완할 점 혹은 기재하고 싶은 소식이 있으신 분들은 contact point 또는 내용을 적으셔서 이메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Ksk302@nyu.edu

그럼 많은 참여 바랍니다.

편집국장

김 국성 드림.